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001371-01



Ministry of Environment

기록으로 만나는

환경부 이야기



Contents

환경부 연혁	04
[기록소개 No.1] 더 맑게 더 푸르게	06
[기록소개 No.2] 청사이전 기록을 통해 본 환경부 역사	11
[기록소개 No.3] 환경을 지키는 전화번호 128	19
[기록소개 No.4] 호돌이를 아십니까?(환경보전 공익광고)	26
[기록소개 No.5] 기록을 통해 본 환경부 소속기관 변천사	29
[기록소개 No.6] 환경부의 우먼파워	40
[기록소개 No.7] 가족이란 이름으로	50
[기록소개 No.8] 환경부 역사 속 대통령	59
[기록소개 No.9]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환경보호 활동)	75
[기록소개 No.10] 응답하라 1994!(환경부승격 20주년 기념)	86

환경부 연혁

- 1967.2.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 신설(사무관 외 3명)
- 1978.7. 보사부 소속 국립환경연구소 설치
- 1980.1. 환경청 발족**
- 1980.5. 6개 환경측정관리사무소 설치(서울·춘천·부산·대구·대전·광주)
- 1980.9. 한국자원재생공사 설립
- 1981.2.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
- 1984.2. 환경오염중앙지도점검반 발족
- 1986.10. 6개 환경지청 발족(서울·원주·부산·대구·대전·광주)
- 1986.10. 국립환경연구소를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변경
- 1990.1. 환경처 승격, 6개 '환경지청'이 '지방환경청'으로 개칭**
- 1991.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994.4. 정부과천청사로 이전
- 1994.5. 건설부의 상하수관리업무, 보사부의 음용수관리업무를 환경처로 이관
- 1994.5. 수계를 중심으로 4개 환경관리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과 3개 지방환경관리청(원주·대구·전주)으로 개편
- 1994.12. 환경부 승격**
- 1995.1. 쓰레기종량제 실시
- 1995.10. 인천지방환경관리청 개칭
- 1996.5. 환경신문고 설치
- 1996.6. 제1회 환경의 날 실시(법정기념일 지정)
- 1997.3. 수도권매립지에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

- 1999.5. 한강환경관리청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칭
- 1999.5.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개칭
- 2000.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 2002.8. 4개 유역환경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과 4개 지방환경청(경인·원주·대구·전주) 체제로 개편
- 2005.1. 수도권대기환경청 개칭
- 2005.7.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개원
- 2005.8. 국립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출범
- 2005.9. 친환경상품진흥원 개원
- 2006.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개원
- 2007.10.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 2008.2. 기상청이 환경부 외청으로 이관
- 2009.2. 환경보건정책관 설치
- 2009.4.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 출범
- 2010.1.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 출범
- 2010.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치
- 2012.7. 전주지방환경청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개칭
- 2012.12.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 2013.12. 국립생태원 발족
- 2014.1.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더 맑게,
더 푸르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문서를 생산하거나 접수합니다. 혹시 문서 상단 또는 하단에 적혀있는 슬로건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09년 하반기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공문서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09년부터 공문서에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정책 슬로건 활용 협조요청」 (정책홍보팀-1300, 2009.8.10.)

그렇다면 우리 부에서 널리 사용된 슬로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부에 조금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면 “더 맑게, 더 푸르게”라는 문구가 제일먼저 생각나셨을 겁니다. “더 맑게, 더 푸르게”는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여 널리 쓰였을까요?



기록(『청훈청가관계철(1986)』)에 따르면 1986년 6월, ‘직원들에 대한 사명감 고취’, ‘진취적 안목 배양’ 및 ‘환경행정 구현의 의지표현’의 목적으로 청훈(廳訓)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안을 간부회의에서 검토 후 최종결정한다는 청훈제정 방침에 따라 직원들에게 청훈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안 ‘더 맑게 더 푸르게’, 2안 ‘쾌적한 환경보전’, 3안 ‘쾌적한 환경조성’, 4안 ‘신뢰받는 환경행정’, 5안 ‘다함께 더 깨끗하게’, 6안 ‘온누리에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범위가 좁혀졌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맑게, 더 푸르게”가 공식 청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공식청훈 제정 후 1986년 9월 6일 『환경청 청훈(더 맑게 더 푸르게) 날인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1986년 9월 24일 『청훈날인 지침 시달(총무01300-8890호)』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라 대내외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에 청훈(고무인)을 사용토록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청 시절에 만들어서 환경처를 거쳐 환경부까지 가야말로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슬로건입니다.

기 안 용 지

공문번호 총무인도	총무 01300-	(내부) 824-2707	청 훈 부 직	국 민 정부
의제번호	8890	청 훈	청 훈	
의제일자				
유류번호				
과 직	청 훈			
과 직	청 훈			
과 직	청 훈			
의제일자	작성중			
주 소	(제 1 단)			
주 소	수신서장			
주 소				
주 소	청훈 날인 지침 시달			
주 소	1. 총무 01600 - 8336(196, 5, 6)호와 관련임.			
주 소	2. 환경행정의 관공정신 통보를 토로하기 위하여 내내에도 발송되			
주 소	는 모든 문서에 무기한 청훈 고무인을 날인토록 지시하였는 바, 이에 따라			
주 소	시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미흡함이 지적하지 않음.			
주 소	첨부 청훈(고무인)날인 지침 지침 1부. 들.			
주 소	수신서 (가), (나), (다), (라).			
주 소	(제 2 단)			
주 소	수신 수신서장			
주 소	첨부 청훈 날인 지침 통보			
주 소	1. 총무 01600 - 8336(196, 5, 6)호와 관련임.			

청 훈 날인 1986.9.24

기 안 용 지

공문번호 총무인도	총무 01300-	(내부) 824-2707	청 훈 부 직	국 민 정부
의제번호	8890	청 훈	청 훈	
의제일자				
유류번호				
과 직	청 훈			
과 직	청 훈			
과 직	청 훈			
의제일자	작성중			
주 소	(제 1 단)			
주 소	수신서장			
주 소				
주 소	청훈 날인 지침 시달			
주 소	1. 총무 01600 - 8336(196, 5, 6)호와 관련임.			
주 소	2. 환경행정의 관공정신 통보를 토로하기 위하여 내내에도 발송되			
주 소	는 모든 문서에 무기한 청훈 고무인을 날인토록 지시하였는 바, 이에 따라			
주 소	시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미흡함이 지적하지 않음.			
주 소	첨부 청훈(고무인)날인 지침 지침 1부. 들.			
주 소	수신서 (가), (나), (다), (라).			
주 소	(제 2 단)			
주 소	수신 수신서장			
주 소	첨부 청훈 날인 지침 통보			
주 소	1. 총무 01600 - 8336(196, 5, 6)호와 관련임.			

청 훈 날인 1986.9.24

※ 「청훈날인 지침 시달」 (총무01300-8890호, 1986.9.24.)

청훈날인 지침에서는 환경청 청훈 “더 맑게 더 푸르게”의 날인 목적을 환경행정의 적극적인 대민홍보 도모,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환경보전사업 수행에 따른 사명감 및 자긍심 고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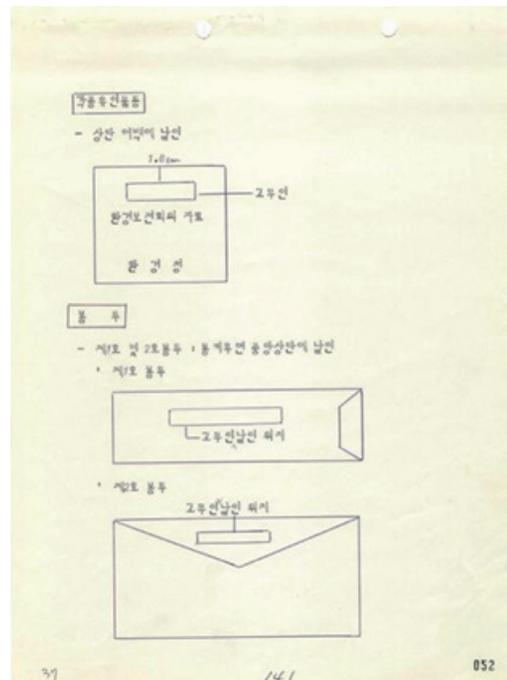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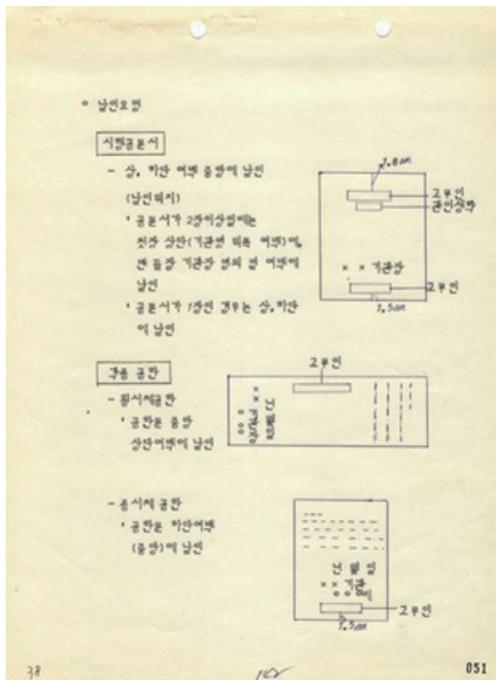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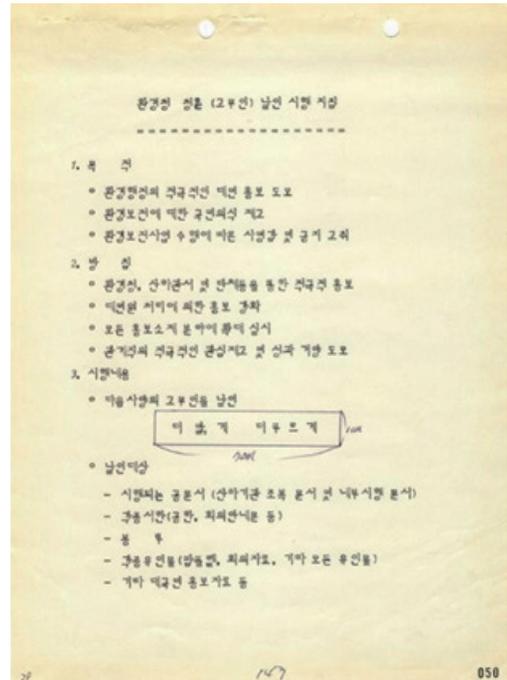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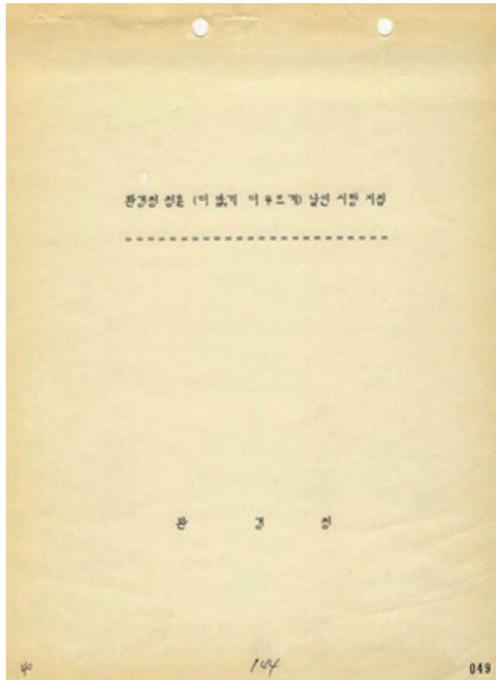
지침에 따르면 “더 맑게 더 푸르게” 고무인(가로7cm×세로1cm)을 제작하여 모든 시행공문서 상, 하단 여백 중앙에 날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서한(공한, 회의안내문 등) 및 봉투, 팜플렛, 회의자료 등과 같은 각종 유인물, 그리고 대국민 홍보자료 등에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날인 대상에 따라 고무인 날인 위치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스탬프 색상은 환경청 상징색상인 짙은 하늘색(靑色)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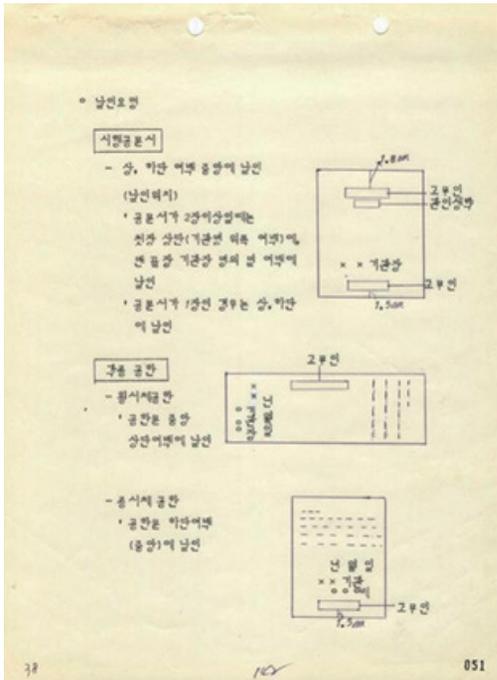
아울러 고무인은 자체 제작하여 사용토록 하고, 문서통제관이 청훈 날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도 친숙해서 그래서 오히려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그래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 연원을 알아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환경인의 사명이 7자에 오롯이 담긴 “더 맑게 더 푸르게”에 관련된 기록은 우리 환경가족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더 맑게, 더 푸르게” 후세에도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듯이 소중한 환경기록도 잘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기록물은 환경부기록관(477호)에 보존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2화

기록소개
No.2(2013.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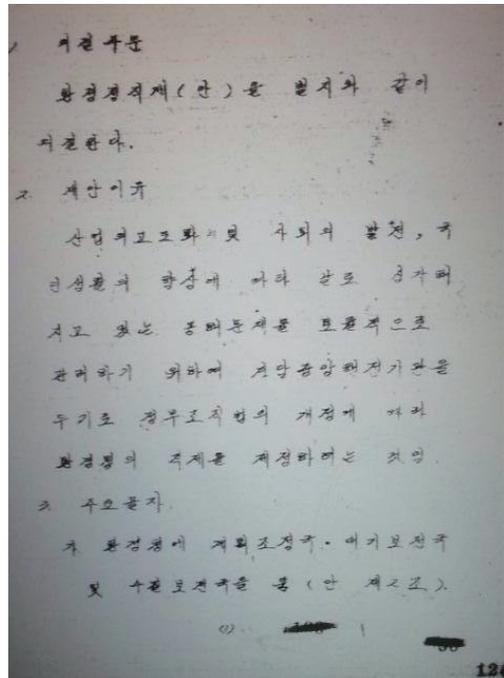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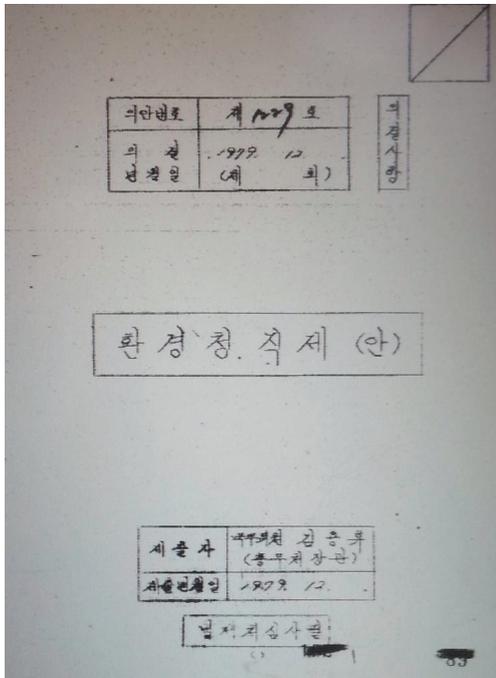
“청사이전 기록을 통해 본 환경부 역사”

- 세종청사 이전 6개월을 즈음하여 -

우리 환경부는 1980년 환경청에서 1990년 환경처로, 다시 1994년 환경부로 거듭 발전하며 34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사이전 기록을 통해 환경청(廳)-환경처(處)-환경부(部)로 이어지는 34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 12월 24일, 제98회 차관회의에서 산업의 고도화 및 사회의 발전,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중앙행정기관(환경청)을 두기로 하고, 대기

보전·수질보전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환경청직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출처: 국가기록원

1980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9707호로 환경청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환경청(1980.1.5.~1990.1.2.)은 198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번지 구 경복국민학교 자리(교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과 공해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어 1967년 2월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에 4명의 직원(5급1, 6급이하 3)으로 시작하여 1980년 1월 비로소 환경청이 신설된 것입니다. 환경청 발족 당시 3국 1관 13과 3담당관에 직원은 246명이었고, 보건사회부·체신청·철도청·전매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전입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승규 청장은 진의종보사부장관, 함명수보사위원장, 김용휴총무처장관과 환경청 개청 테이프를 끊었다.(1.15)

개청 첫해, 전문성 및 일체감 부족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의 투철한 의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활동 하였으나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부지 소유주인 보험공사의 이전 요청으로 1981년 4월 서울 종로구 공평동 공평빌딩으로 자리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후 공평빌딩에서 1년 남짓 업무를 하고 다시 1982년 7월 중구 서소문동(정동) 신아빌딩(구 신아일보빌딩)으로, 그리고 또다시 1985년 4월에 송파구(당시 강동구) 신천동 구 현대사회연구소빌딩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개청 이래 5년만에 4번이나 이삿짐을 꾸렸던 그야말로 험난한 셋방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환경청은 7층짜리 현대사회연구소빌딩에 입주하여 3~5층을 사용하였고, 1987년 5월 정부가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비로소 단독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통의동 청사



공평동 공평빌딩 청사

서소문동 신아빌딩 청사

※ 관련사진이 있는 분은 환경부 기록관 (044-201-629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장자료에 한함, 인터넷 자료 제외)



잠실 현대사회연구소빌딩 청사

한편 환경문제가 국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반면 차관급인 청 단위에서는 법령제정·협의권도 없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여 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한계가 있었고, 1992년에 예정된 세계 정상급 환경회의인 리우회의에 환경청이 주무 부처로 정부차원의 회의 참가 준비를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환경청은 1990년 1월 3일 환경처(1990.1.3.~1994. 12.22.)로 승격됩니다.

환경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환경처직제(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은 2실 4국 4관 21과 5담당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환경처 청사는 기존 잠실청사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대통령 휘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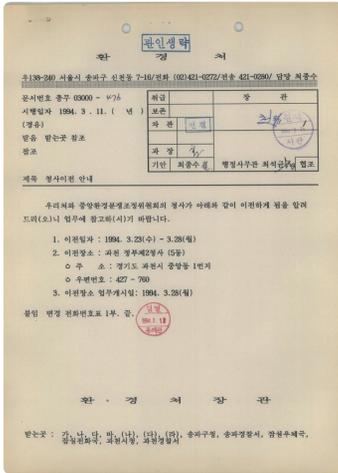


환경처 헌판식(중앙 강영훈 국무총리, 왼쪽 두 번째 조경식 초대 환경처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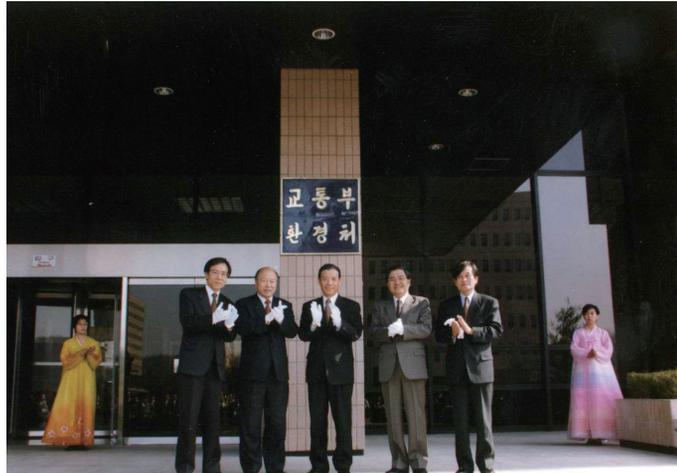


이후 환경처는 1994. 3월경에 정부제2종합청사(과천청사) 제5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9년간의 잠실청사를 뒤로하고 과천시대를 개막하게 됩니다. 과천청사로의 이전을 환정보전 의지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 입주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으며, 당시 언론에서도 환경처가 14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비로소 본가에 의젓하게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연합뉴스 1994.3.22자 기사 참고)

1) '환경처' 헌판 글씨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1988.2.~1993.2.) 친필



청사이전 안내 공문(1994.3.11)



과천청사 이전 후 과천청사 5동 현관 앞에서 현판식 거행
 (왼쪽부터 김인환 기획관리실장, 박윤흔 장관, 김형철 차관, 조병환
 조정평가실장, 전영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94년 당시 직위 표기

1991년과 1994년에 발생한 두 차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로 말미암아 보다 강력한 국가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1994년 5월 당시 건설부 소관이었던 상하수관리 기능과 보건사회부 소관이었던 음용수관리 기능이 환경처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가 과천청사로 이전한 그해 겨울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1994.12.23.~현재)로 승격 됩니다. 조직은 2실 5국 5관 30과 4담당관으로 확대되었으며, 1998년에는 국립공원관리 업무가 당시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이듬해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관련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로써 국가의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했던 환경부는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대국대과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에 2008년 3월에 대변인실, 감사관실, 상하수도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 등이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김중위 초대 환경부 장관, 김인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판식 거행



초기 환경부 현판



'06년 변경된 환경부 현판



과천청사 5동 환경부 전경



과천청사 사무실 모습

그리고 2012년 12월, 만 18년 동안의 과천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대망의 세종청사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6동 4~7층에 자리를 마련한 환경부는 2실 3국 7관 36과의 조직을 구성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글로벌리더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arewell 과천 행사 후 기념촬영(2012.12.18.)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이전(2012.12.18.~31.)



윤종수 차관, 유한식 세종시장 등이 참석하여
세종청사 현판식 거행(2012.12.31.)

서양에 ‘이사 세 번하면 불 한번 난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그만큼 없어지는 물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환경청 개청 이후 세종청사까지 여러 차례 이어진 청사이전 속에서도 소중한 환경기록을 잘 남겨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환경가족께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부의 역사가 40년, 50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참고기록〉

- 환경처 승격기념행사철(1990)
- 청사이전관계철(1994)
- 환경청직제안(1979.12.)
- 환경처직제안(1989.12.)
- 「환경 30년사(2010, 환경부)」
- 「환경부 조직·정원 연혁(2007, 환경부)」
- 「환경처 오늘 과천종합청사로 이전(1994.3.22자 기사, 연합뉴스)」

3화

기록소개
No.3(2013.9.13.)

“환경을 지키는 전화번호 128”

가수 윤하의 히트곡 중에 “비밀번호 486”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 키스를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잊지말고 지켜야할 연인들만의 비밀번호랍니다.

그럼 시시때때로 위협받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잊지말고 눌러야하는 번호는 몇 번일까요? 네 바로 “128”번입니다.

우리 부 감사관실에서는 1996년에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신속조치를 위해 환경오염신고전화를 만들었는데요, 환경오염사범 발견 즉시 “이리빨리(128)” 신고하라는 뜻에서 “128”번을 지정했습니다.(한겨레, '96.5.2.일자 참고)

그리고 환경오염신고전화를 전담하여 접수받고 처리하는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하였는데 그 이름이 ‘환경신문고’입니다. 사실 순서는 환경신문고가 '96.2.29일 현판식을 갖고 먼저 설치되었고, 환경오염신고전화 ‘128’이 '96.5.1일 개통되었습니다.

1996년 5월 17일 제정된 「환경신문고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143호)」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¹⁾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기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상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1일 3회[9:30, 13:30, 17:30(동절기에는 16:30)]이상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정종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신문고 헌판식을 하고 있다(1996. 2. 29.)



정종택 장관이 환경오염신고센터 순시 중 직원의 업무 모습을 보고 있다.

환경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1996년 당시에는 수도권 및 환경관리청 소재지 등 일부지역에서만 국번없이 128번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번을 눌러야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C통신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천리안과 하이텔에서 각각 'GO MOE, 128환경신문고 / GO ENV, 128환경신문고'로 접속하면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환경신문고 설치 첫 해에 총 4만4천여 건의 환경오염신고가 접수(하루 평균 144건)되어, 신문고 설치 이전보다 신고건수가 2.8배 늘었다고 하니 '128'의 위력이 정말 놀랍습니다.(동아일보, '97.4.28.일자 참고)

■ 오염행위별 신고기관

- 사업장의 불법행위
 - 공업단지 안에 있는 사업장 : 환경관리청
 - 기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폐기물투기행위
 - 폐유 등 유류성 폐기물 : 환경관리청
 - 일반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 시·군·구청
- 폐연·과다배출 자동차 : 시·군·구청
- 민원 부당처리 공무원 : 환경부



■ 신고한 사항의 처리는?

- 민원의 내용에 따라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 또는 관할기관에서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보



176

「환경신문고」 전화 및 FAX번호 안내

기관명	전화번호	FAX
환경부	021128	021503-0128
한강환경관리청	03451128	0345184-0128
낙동강환경관리청	05511128	0551184-0128
금강환경관리청	0421128	0421863-0128
영산강환경관리청	0621128	0621522-0128
원주지방환경관리청	0371128	037145-0128
대구지방환경관리청	0531128	0531761-0128
인천지방환경관리청	0321128	0321438-0128
전주지방환경관리청	06521128	06521242-0128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과천, 광명, 안산, 원주, 창원, 마산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28'을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지역의 '지역번호 + 128'을 누르십시오.

* 시·도, 시·군·구청의 '128'번은 97년 초에 개통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일반 민원전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듭시다

177

환경오염신고센터

「환경신문고」 안내

신고전화, 국번없이 128로



환경부

172

■ 「환경신문고」란?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환경신문고」 설치기관은?



- 환경부 환경조사과
-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
- 시·도·시·군·구 환경안전실 또는 환경지도과

■ 「환경신문고」 신고 대상은?

- 자동차예연,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 유독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출행위
- 환경오염사고

■ 「환경신문고」 신고 방법은?



- 단속 공무원이 미리행위
- 오염행위를 방지하여 남존을 요구하는 사이에 거주나 사업이 환경단체

■ 「환경신문고」 이용 방법은?

- 전화 : 국민없이 128
- FAX 통신
- 인터넷 : GO MOE, 128 누리신문고
- 이메일 : GO ENV, 128 누리신문고
- 신고 전용 PAX
- 편지 또는 우편엽서
- 직접 방문

■ 「환경신문고」 신고 요령은?

-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인명), 오염행위내용 등을 자세히 신고
- 대안 마련을 제청하여 경유는 지방단체를 반드시 수신신고



173

174

175

※ 환경오염신고전화 안내 리플릿(1996)

환경신문고 ‘128’은 1997년 1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국번호로 확대되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전화망이 32개 시군구까지 확충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28번만 누르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경신문고(128)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094호, 2000.11.시행.)



※ 환경훼손행위 신고포상금제 안내 스티커(2000)

신고대상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신고대상 환경 훼손 행위(사태)	포상금 지급기준	
		최저	최고
환경오염	부러가 배출시설(업소)	10만원	100만원
	오염물질 불법배출	5만원	100만원
	기타 환경 법규 위반 행위	2만원	20만원
아생동물 밀렵· 밀거래	반달사슴, 산양, 사면노루 등	200만원	250만원
	수달, 늑대, 물개 등	100만원	150만원
	독수리, 원앙, 흑기러기 등	50만원	100만원
	기타 야생조수 및 이의 기공품	20만원	70만원
국립공원 자연훼손	무단행진변경 등 불법 행위	10만원	100만원
	도·남방 행위	10만원	100만원
	오물 투기 행위	2만원	8만원
	풀·나무등을 찍는 행위	2만원	4만원

환경 훼손 행위 신고는 우리의 환경과 시민의식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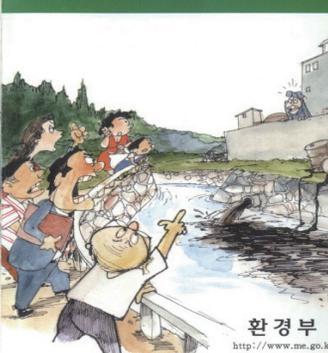


환경부
http://www.me.go.kr

신고및안내 • 신고: 국민행위 128, 환경오염 등 4대·도·시·군·구청 민원실
• 안내: 환경부 상담콜센터 / 02-398-4286 ~ 4284, FAX / 02-398-0238

환경 훼손 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아십니까?

시민의 눈이 살아있는 곳에 환경정범은 밟 볼일 수 없습니다.



환경부
http://www.me.go.kr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명과 같은 환경을
남달려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여만 폐수나 폐기물이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아생동물 밀렵이 우리의 자연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환경 훼손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오·폐수, 폐기를 무단투기 등 오염 행위
- 아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신고방법

- 전화 : 국민행위 128
- 환경관리청 민원실
- 시·도·시·군·구청 민원실
-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훼손행위 신고포상금제 안내 리플릿(2000)

환경신문고 운영·안내

국민행위 128, 환경오염 등 4대·도·시·군·구청 민원실

환경부 02-398-4286 ~ 4284, FAX 02-398-0238

시·도·시·군·구청 민원실

환경부 02-398-4286 ~ 4284, FAX 02-398-0238

시·도·시·군·구청 민원실

환경부 02-398-4286 ~ 4284, FAX 02-398-0238

시·도·시·군·구청 민원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



128
신고전화

환경부
www.me.go.kr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 안내 리플릿(2005)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

국민행위 128, 환경오염 등 4대·도·시·군·구청 민원실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요령...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에 사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한
경우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이 완료된 후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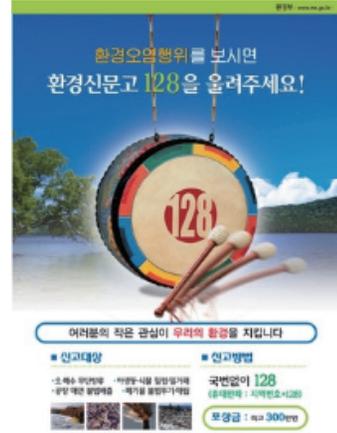
환경오염행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환경신문고 포스터(2003)



환경신문고 포스터(2004)



환경신문고 포스터(2005)



환경신문고 포스터(2006)



환경신문고 포스터(2010)



환경신문고 포스터(2011)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매체가 생겨나고 이에 부응하여 환경신문고 '128'을 홍보하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스터와 리플릿은 물론, UCC, 인터넷 블로그, 카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보 공모전 및 각종 이벤트 등 생활 속에 친숙하게 환경신문고 '128'을 널리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128) 및 신고포상금제도 홍보물 공모전 수상작모음 CD (2008)

홍보물 공모전 '대상'작품(2007) 



※ 환경신문고 안내 리플릿(2011)

지금도 전국에서 해마다 16만여 건의 환경오염 신고전화가 '128'로 접수됩니다. 그만큼 아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국민들이 128번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고마운 번호 128...

'이리빨리(128)' 신고하면 '일년 열두달 팔팔한(128)'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환경오염 신고전화 안내 리플릿, 포스터
- 「환경오염신고 ‘128’로 돌리세요(1996.5.2일자 기사, 한겨레)」
- 「환경신문고 전국확대 지역번호 없이 128번(1997.1.5일자 기사, 동아일보)」
- 「환경신문고 하루평균 144건 접수(1997.4.28일자 기사, 동아일보)」

“호돌이를
아십니까?”

-환경보전 공익광고-

‘88서울올림픽 공식 마스코트는 ‘호돌이’입니다. 호돌이는 청와대 CI, 대전엑스포 ‘꿈돌이’ 등을 만들었던 디자이너 김현의 손에 의해 1983년에 탄생했으며, 올림픽 공식마스코트로 지정되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곳곳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호돌이가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고, 환경보전을 주장하며 공익광고에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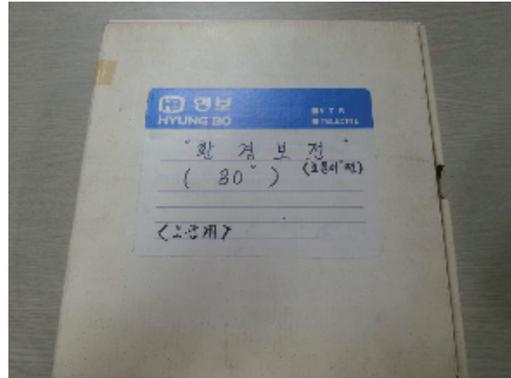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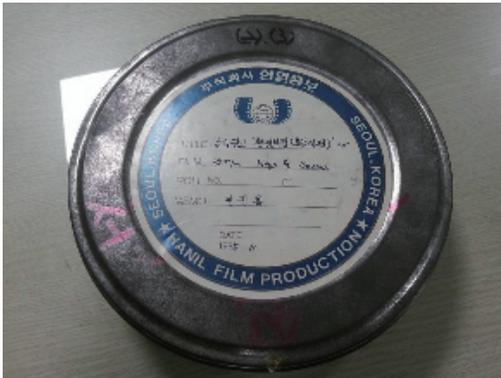


※ ‘호돌이가 등장하는 환경보전 공익광고(1985, 제작:한일홍보, 출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초짜리 공익광고 영상 속 호돌이는 명랑한 목소리로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환경이 많이 깨끗해 졌지만 아직도 자동차와 공장 매연, 쓰레기 투기 등 환경을 더럽히는 반칙들을 하고 있다며 옐로카드를 꺼내드립니다. 이어 여성 내레이션으로 ‘환경보전은 나를 위하고 우리 자손을 위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끝을 맺습니다.

현재 우리 부 기록관에 위 동영상으로 추정되는 공익광고 원본필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85년에 제작되었으니 무려 28년된 유물입니다.

해당필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외부에 기재되어 있는 제목이나 여타 정보로 미루어 볼 때 공익광고 동영상 원본으로 추정되며, 외관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문서는 발견이 안 되어 어떤 취지로, 어떠한 절차로, 얼마의 예산으로 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문서와 동영상필름이 함께 완벽한 세트를 구성했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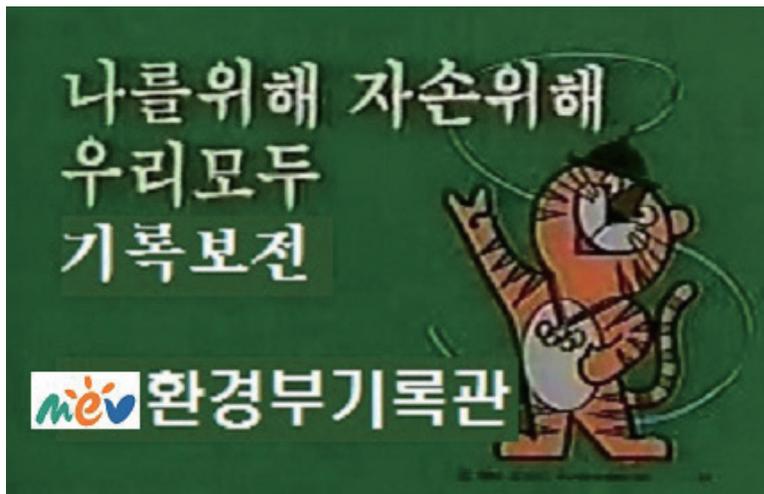
공익광고 “환경보전(호돌이편)”, 30”
35m/m Nega 및 Sound, 보관용(1985.11.)

“환경보전(호돌이편)” (30”)
<보관용 필름>

해마다 각 실국에서, 각 기관에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홍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기록을 잘 남기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미루다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 소중한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록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호돌이가 옐로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우리 모두 기록을 소중히 다루고 잘 보존합시다!



5화

기록소개
No.5(2014.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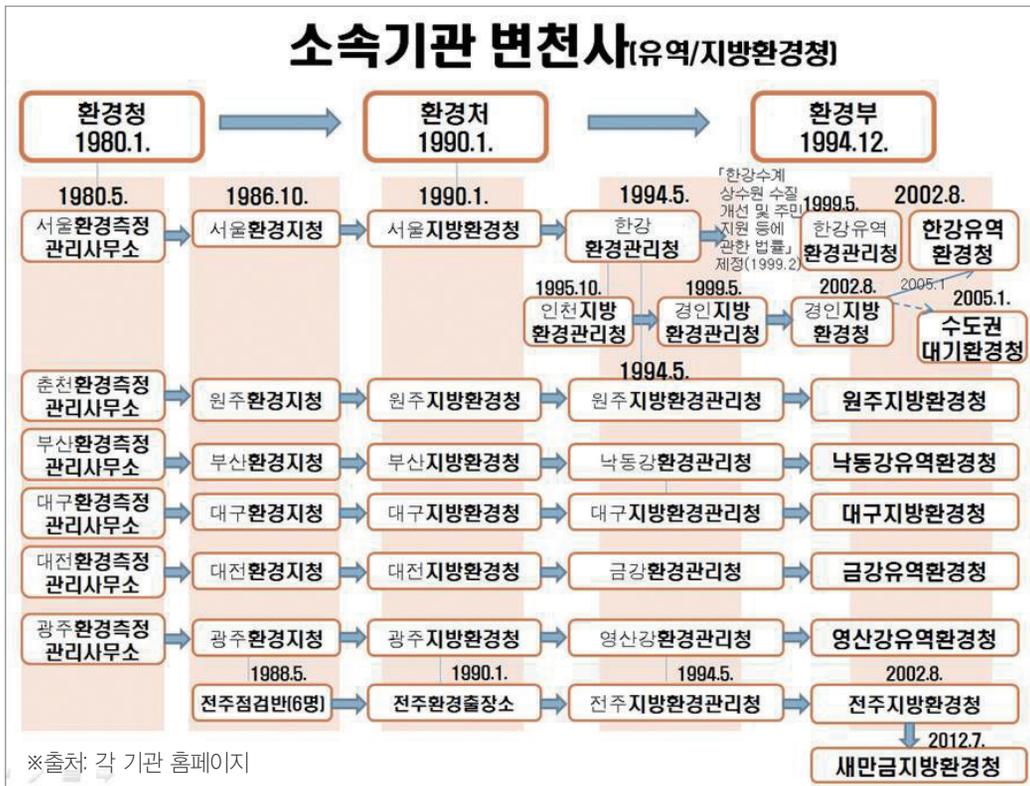
“기록을 통해 본 환경부 소속기관 변천사”

- 지방환경관서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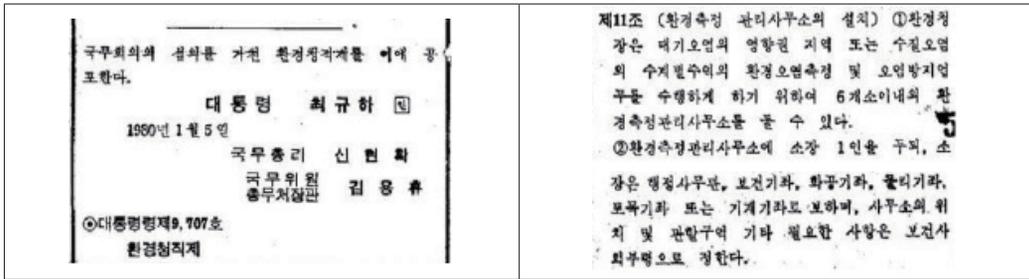
최근 우리 부에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설되면서 14번째 소속기관이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생태원’이 산하공공기관으로 발족하여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부는 전국 각지에 14개 소속기관과 5개의 산하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조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980년 환경청(廳)에서 1990년 환경처(處)로, 다시 1994년 환경부(部)로

이어지는 35년의 역사 속에 그 궤를 함께해 온 소속기관들, 그 중에서도 지방환경관서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9707호로 「환경청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환경청(1980.1.5.~1990.1.2)이 개칭됩니다. 「환경청직제」에는 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 설치 근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 「환경청 직제」(출처: 관보 제8436호, 1980.1.5.)

같은 해 5월, 「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647호, 1980.5.2.)에 따라 서울·춘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지역에 환경측정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7월부터 각 사무소를 개소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環境測定管理事務所

沿革

1980. 1. 5. (大統領令 第9707号)

環境庁職制 第11條(環境測定管理事務所設置)

1980. 5. 2. (保健社會部令 第647号)

環境測定管理事務所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에 關한 規則

1980. 7. 1 各事務所 開所

※ 환경측정관리사무소 연혁,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내역(1980)

環境測定管理事務所의 名稱, 事務所의 位置 및 管轄區域

名稱	事務所位置	管轄區域
서울環境測定管理事務所	서울特別市 莊洞區 北洞路 422-5 (社舍路66-5號 3層)	· 서울特別市 地域 · 경기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인천군을 제외한 지역
忠川環境測定管理事務所	江原道 春川市 雲梯路 49-25 (社舍路2層)	· 江原道 地域 · 경기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강원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충청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전라도 및 경상도 지역
大邱環境測定管理事務所	忠清南道 大邱市 中區 大興路 498-2 (社舍路1層 4層)	· 忠清南道 地域 · 충청북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충청남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전라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북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남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전라도 지역
光州環境測定管理事務所	全羅南道 光州市 西區 廣城路 209-5 (社舍路3層)	· 全羅남도 지역 · 전라북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전라남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남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북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남도 지역
大邱環境測定管理事務所	慶尙北道 大邱市 東區 大邱路 119 (社舍路2層 3層)	· 경상북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남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전라도 지역
釜山環境測定管理事務所	釜山特別市 西區 釜山路 125 (社舍路3層 4層)	· 부산시 지역 · 경상남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북도 지역을 가릴 수 없음 · 경상남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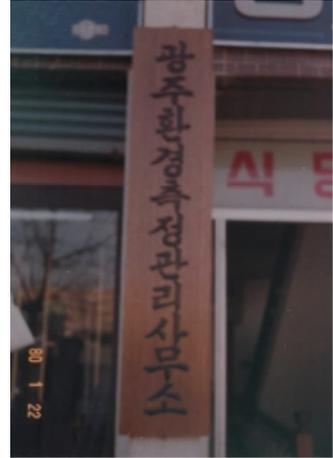
환경측정관리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오염원 조사 및 오염도 측정, 공해업소의 자가측정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5급 소장(행정사무관 또는 보건·화공기좌) 1명과 4명의 기술직원이 근무했습니다. (매일경제 1980.7.29일자 기사 참고)



박준의 환경청장(우)과 민병찬 서울환경측정관리사무소장 ('80.7.29)



한수생 환경청 기획관리관(우)과 유패룡 대전환경측정관리소장 ('80.8.1)



광주환경측정관리사무소 현판



한수생 환경청 기획관리관(우)과 박기상 대구환경측정관리소장 ('80.8.2)



한수생 환경청 기획관리관(우)과 이병구 부산환경측정관리소장 ('8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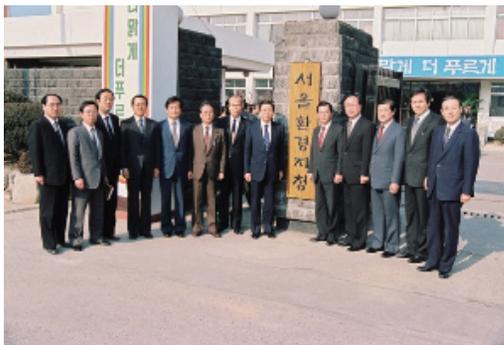


춘천환경측정관리사무소 현판

그러나 환경측정관리사무소 1개소당 5명의 인력이 담당하기에는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어 1983년 5월, 서울 33명, 부산 28명 등 총 134명의 인력으로 증원됩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 29일 「지방환경관서직제」를 제정(대통령령 제11995호, 1986.10.29.)하면서 ‘환경측정관리사무소(環境測定管理事務所)’가 ‘환경지청(環境支廳)’으로 개편(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환경지청, 정원 363명)됩니다. 환경지청은 각 지청별로 3개과(계획과·지도과·측정분석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지원, 공해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도측정 등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동아일보 1986.12.8일자 기사 참고)

1986년 12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매일 차례대로 6개의 각 환경지청이 개청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광주환경지청 소속 하에 제주출장소가 설치되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제주지역의 각종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서울환경지청 개청식(1986.12.8.)

부산환경지청 개청식(1986.12.9.)



대구환경지청 개청식(1986.12.10.)



광주환경지청 개청식(1986.12.11.)



대전환경지청 개청식(1986.12.12.)



원주환경지청 개청식(1986.12.15.)

한편 환경문제가 국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환경청은 1990년 1월 3일 환경처(1990.1.3.~1994.12.22.)로 승격됩니다. 환경처 승격과 함께 ‘환경지청(環境支廳)’은 ‘지방환경청(地方環境廳)’으로 변경(1990.1.3.)됩니다. 아울러 기존 제주환경출장소 외에 6개 환경출장소(서울북부·춘천·울산·전주·청주·포항)도 신설¹⁾됩니다.



조경식 초대 환경처장관 원주지방환경청 순시('90.3.27)



조경식 초대 환경처장관 대구지방환경청 순시('90.3.29)



권이혁 장관(3대) 부산지방환경청 순시(1991.7.1)



권이혁 장관(3대) 대전지방환경청 순시(1992.1.25)



황산성 장관(5대) 광주지방환경청 시찰(1993.11.12)



전주환경출장소 헌판식(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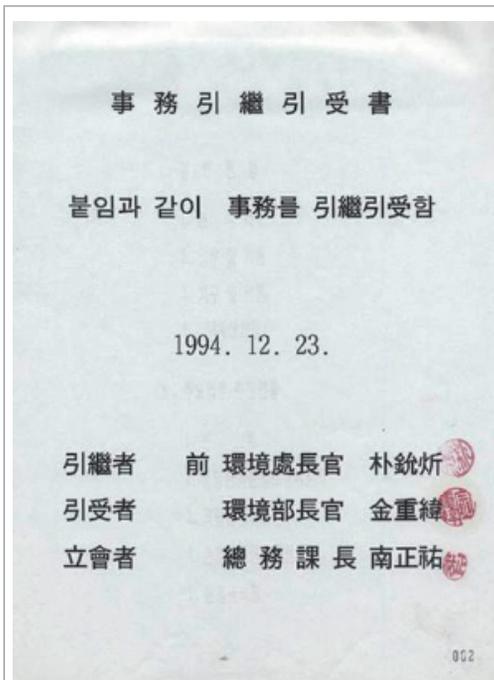
1) 「환경출장소 명칭 등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0-1호, 1990.1.11.)」

1991년, 1994년 두 차례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강력한 국가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1994년 5월, 당시 건설부 소관 상하수관리 업무와 보건사회부의 음용수 관리업무 등 물관리 기능이 환경처로 일원화됩니다.



한강환경관리청 현판식(1994.5.10.)

그리고 서울·부산·대구 등 지역단위의 6개 지방환경청이 수계를 중심으로 4개 환경관리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과 환경관리청 소속의 2차 기관으로서 3개 지방환경관리청(원주·대구·전주)으로 개편(1994.5.) 됩니다.



※ 환경처-환경부장관 사무인계인수서 중 지방환경관서 현황(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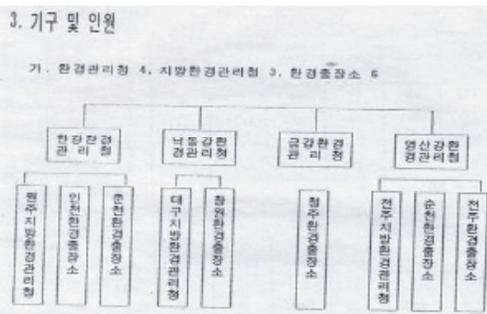
1. 연혁

- 1980. 7 6개 지방환경측정관리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춘천) 설치
- 1985. 10 6개 환경지청(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 및 제1환경출장소 설치
- 1980. 1 환경지청을 지방환경청으로 명칭변경하고, 6개 환경출장소(북부·춘천·울산·전주·포항·청주) 증설
- 1981. 3 대구지방환경청 소속하에 구미환경출장소 증설
- 1982. 7 지방환경청의 지도과를 폐지하고 관리과를 신설
- 6개 환경출장소로 축조포장(춘천·부산동부·전주·제주·청주)
- 1994. 5 6개 지방환경청, 5개 환경출장소를 4개 환경관리청, 3개 지방환경관리청, 6개 환경출장소로 개편

2. 임무 및 기능

가. 임무

- 권역별 환경모니터링 수법·시행
- 환경오염방지 기술지원
- 환경보건 대책인 홍보에 관한 사무
- 환경오염도 측정 및 환경오염물질 시험분석
-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



이후 1994년 12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한 뒤로도 4대강 중심의 소속기관 편제는 지속되었고, 1995년 10월에 인천지역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환경출장소'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 새로이 개칭하게 됩니다. 1999년 2월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99년 5월에 '한강환경관리청'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간판을 바꾸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인천지방환경관리청' 역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개청식(1999.8.27.)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개청식(1999.8.27.)



경인지방환경관리청 개청식(1999.8.28.)



경인지방환경관리청 개청식(1999.8.28.)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시행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개청하여 한강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자 낙동강·영산강·금강수계에 대해서도 한강과 같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02년 1월에 제정하게 되었고,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8월에

소속기관이 지금과 같이 **유역환경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경인·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2002년에 편성된 4개 유역청 및 4개 지방청 체계가 유지되다가 2005년 1월 ‘경인지방환경청’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 자리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개청하게 됩니다. 한편 2009년 2월에는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전국 각지에 산재해있던 8개 환경출장소²⁾가 모두 폐지되고, 대구지방환경청 소속의 왕피천환경출장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는 ‘전주지방환경청’이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개청식(2005.1.18.)



수도권대기환경청 개청식(2005.1.18.)



영산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개청식(2010.11.15.)



새만금지방환경청 개청식(2012.8.8.)

환경청이 환경처로 다시 환경부로 발전해 나아가면서 우리 소속기관도 보조를 맞추어 거듭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가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소속기관도 ‘환경측정관리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35년의

2) 경인·부산·울산·청주·여수·춘천·구미·포항환경출장소

역사를, 환경지청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3년 후 30주년이 됩니다. 모든 기초를 세운다는 30세 ‘이립(而立)’의 나이입니다. 기초를 세웠으니 세간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환경을 지켜나가며 40년, 50년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참고기록〉

- 환경청·측정관리사무소·자원재생공사 개청식 사진첩(1980)
- 사무인계인수서(1994.12.23.)
- 관보 제8436호(1980.1.5.)
- 「환경 30년사(2010, 환경부)」
- 「환경부 조직·정원 연혁(2007, 환경부)」
- 「서울 등 6곳에 환경측정관리소 공해방지업무 등 본격 추진 (1980.7.29일자 기사, 매일경제)」
- 「6개 환경지청 개청(1986.12.8일자 기사, 동아일보)」



“성년의 날”을 맞이한 당청의
여직원들. (5.6)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는
1980년 환경청이 개청한 그해
동갑내기 동기 4명과 함께 환경청에 입사했다.
그리고 1980년 5월 6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장님 앞에 서게 되었다.

나는 환경청이 개청한 1980년 이래 현재까지
환경부에 근무하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환경인이다.

- 어느 여직원의 기록 -

“환경부의
우먼파워”

2013년 2월 25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개최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피겨 여왕 김연아를 비롯하여 이상화, 심석희, 박승희 등 우리나라 선수가 뛰어난 실력으로 한국의 우먼파워를 전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 부는 다섯명의 여성 장관을 모시는 등 여성과의 인연이 많은 부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 역사 속에서 함께해온 환경가족 여성들의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한 당청의 여직원들 (5.6)



박승규 초대 환경청장이 성년의 날을 맞은 여직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198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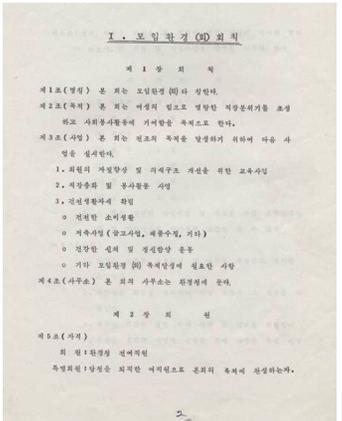
박준의 환경청장(2대)과 “성년의 날”을 맞은 여직원 기념행사(198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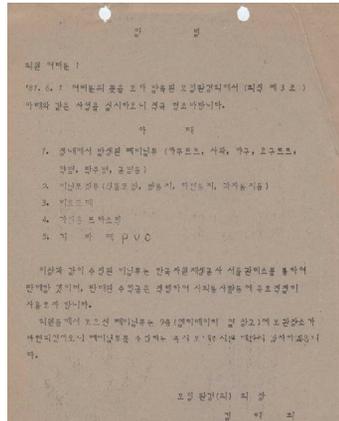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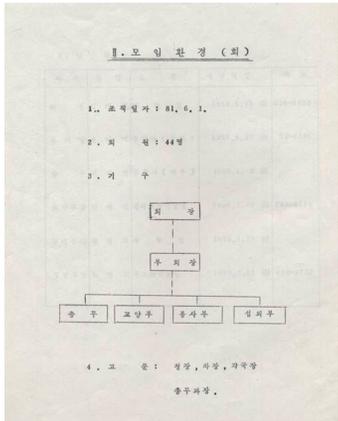
국립환경연구원(現 국립환경과학원) “성년의 날” 행사 모습(1991.5.20)

우리 환경부의 역사에서 여직원의 활동을 떠올리면 ‘모임환경회’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모임환경회’는 ‘여성의 힘으로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 6월 1일에 조직되었습니다(회원 44명).

모임환경회는 당시 상급기관인 보건사회부의 ‘직장새마을부녀회’를 롤모델로 하여 결성되었으며, 직원들의 정서 및 교양 함양을 위해 도서구입·비치, 교양강좌(꽃꽂이, 공예 등), 미용강좌¹⁾ 실시, 회원생일 축하, 자선찻집(일일찻집), 바자회, 재활용품 수집 등을 벌여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모임환경회는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여직원 친목도모와 권익보호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환경회 회칙(1981.6.1)



모임환경회 재활용품 수집 안내 공지문(1981.11.27)



1982년도 모임환경회 바자회(1982.12.14.)



1982년도 모임환경회 바자회(1982.12.14.)

1) 「아모레, 쥘리아, 피어리스 등 화장품업체로부터 강사를 섭외하여 미용강좌 실시



1989년도 모임환경회 바자회(1989.12.18.)



모임환경회 소식지 「하나되기」창간호(1992)

여직원 중에는 고용직 형태의 ‘타자수(打字手)²⁾’도 많았습니다. 환경청 조직이 1986년 이후 괄목할 정도로 발전(전국 6개 지역에 소속기관인 환경지청 설립)하면서 타자수의 경쾌한 타자소리도 커져갔습니다. 고용직 타자수 대부분은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매일경제 1990.1.26자 기사 참고)



타자기 앞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 모습(1988)



환경청 여직원 간담회(1986.9.1)

2) 타자기를 사용하여 기안문서, 보고서, 통계표, 기타 각종자료를 전사하는 일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대구환경지청 개청식에 귀빈을 맞이하는 여직원모습 (1986.12.10.)



대구환경지청 개청식에 한복을 차려입은 여직원들이 청장훈시를 듣고 있다.(1986.12.10.)



원주환경지청 개청식 행사에서 악기를 연주중인 여직원 모습(1986.12.15.)



원주환경지청 개청식에 여직원들이 박판제 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986.12.15.)



「여직원 교육」에서 강사가 '여절'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1989.9.26.)



환경처 승격을 앞두고 1989년도 환경청 종무식에서 여직원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1989.12.30.)



환경처로 승격한 첫해 실시한 '환경처 송년회'에서 한 여직원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1990.12.31.)



'환경처 송년회'에서 세명의 여직원이 울동을 선보이고 있다.(1990.12.31.)



1997년도 환경부 여직원 단체사진(과천청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개최한 「환경부 여성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한 여직원들(2003.11.14.~15.)





영산강수질검사소에서 여직원이 수질분석을 하고 있다.(1996.1.23.)



봉사활동 중인 국립환경과학원 여직원들(2008.8.30.)



2008년도 환경가족 교례회에서 합창을 하고 있는 합창동호회 '에코리스' 여성회원(2008.3.26.)



환경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여직원 모습 (2011.9.1.)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다시 1994년에 환경부로 발전해 나아가면서 '최초'의 타이틀을 장식한 여직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초'의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이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필재 위원장은 1986년 환경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환경부 최초의 여성 사무관, 최초의 여성 서기관, 그리고 2005년 환경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자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감사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 첫 여성 1급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건설경제신문 2013.10.28자 기사 참고)

첫 여성 환경경찰은 1995년 당시 한강환경관리청 환경기동단속반원이었던 강승희 사무관이며(경향신문 1996.9.18자 기사 참고), 우리 부 첫 여성 환경 사무관은 현재 청와대에 파견근무중인 정은혜 과장입니다.(여성신문 1998.3.27자 기사 참고)



▲ 첫 여성 환경경찰 강승희
-당신을 체포한다 혐의는 '자연추행'-
(경향신문, 1996.9.18.)

- ◀ ① 이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좌측 첫번째)
- ◀ ② 박미자 청장(우측 첫 번째)
- ◀ ③ 정은해 과장

아울러 우리 부 최초의 지방청장이자 전주시지방환경청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변경되고 처음으로 부임한 청장은 현재 주중 한국대사관에 파견근무중인 박미자 청장³⁾입니다.(서울신문 2012.7.30자 기사 참고)

한편 우리 부 첫 여성장관은 황산성 제5대 환경처 장관으로서 1993년 2월 26일 취임하여 1993년 12월 22일까지 환경행정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3)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재임기간: 2012.7.31~2013.10.1.

이후로도 우리 부는 여성 장관과의 인연이 이어져서 손숙 제6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 '99.5.24.~'99.6.25.), 김명자 제7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 '99.6.27.~'03.2.27.), 한명숙 제8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 '03.2.27.~'04.2.16.), 유영숙 제14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 '11.5.31.~'13.3.11.)까지 총 5명의 여성 장관이 부임하였습니다.

한명숙 장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재임기간: '06.4.~'07.3.)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박선숙 제8대 환경부 차관도 우리 부 최초의 여성차관으로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 황산성 제5대 환경처 장관(재임기간:1993.2.26.~1993.12.22.)



황산성 환경처 장관이 주부환경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1993.6.10.)



황산성 장관이 주한 캐나다 대사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1993.6.10.)



황산성 장관이 월례모임에서 직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1993.7.5.)

■ 손숙 제6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1999.5.24.~1999.6.25.)



손숙 환경부 장관이 과천시사에서 열린 알뜰시장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1999.05.26.)



한강환경관리청 순시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손숙 장관(1999.06.12.)



손숙 장관이 사회호 반월공단을 시찰하고 있다.(1999.06.12.)

■ 김명자 제7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1999.6.27.~2003.2.27.)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제55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2000.04.05.)



김명자 장관이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2000.07.29.)



교동초등학교 일일환경교사로 강의 중인 김명자 장관. 좌측에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앉아있다.(2000.12.04.)

■ 한명숙 제8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2003.2.27.~2004.2.16.)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참여정부의 새로운 조직문화형성을 위한 환경부 중간관리자 합동토론회」에서 직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2003.05.16.)



직원 성희룡 예방교육을 실시중인 한명숙 장관(2003.07.25.)



한명숙 장관이 연말을 맞아 안산 천사의집을 방문하여 노인을 위로하고 있다.(2003.12.29.)

■ 유영숙 제14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2011.5.31.~2013.3.11.)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강원도 철원군 소재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간군 합동으로 야생화 식재를 하고 있다.(2012.7.3.)



유영숙 장관이 「아파하는 지구·청소녀를 위한 힐링콘서트」행사 1부 '아파하는 지구에게 희망을!'에서 김진만PD와 함께 환경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12.7.21.)



2012 세계자원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총회 및 총회 성과보고회에서 말씀중인 유영숙 장관(2012.12.17.)

■ 박선숙 제8대 환경부 차관(재임기간:2004.2.27.~2006.1.31.)



박선숙 환경부 차관이 국립환경연구원 (現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공해연구소 실험실을 순시하고 있다.(2004)



과천 청사 안내동에서 정토회, 민간환경단체와 빈그릇운동(음식남기지않기 캠페인)중인 박선숙 차관 (2004.11.10.)



박선숙 차관이 시화호 환경생태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도미상)

2014년 1월말 현재 우리 부 여직원 수는 685명입니다.

명실상부한 우먼파워를 보여주며 우리 부 역사와 동고동락해온 여직원들. 그들은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환경가족입니다.



과천청사 옥상정원에서 모임환경회 회원 기념촬영(2003.6.20)

환경부기록관

<참고기록>

- 「모임환경회 회칙(1981-2003)」
- 「모임환경회 공지사항철(1981-2001)」
- 「모임환경회 회보철(1992-1994)」
- 「환경처 일용직 149명 “생애 최고의 설날”(1990.1.26일자 기사, 매일경제)」
- 「첫 여성 환경경찰 강승희(1996.9.18일자 기사, 경향신문)」
- 「[여성공직자]환경부(1998.3.27일자 기사, 여성신문)」
- 「환경부 사상 첫 여성 지방청장 탄생(2012.7.30일자 기사, 서울신문)」
- 「인터뷰-환경부 첫 여성1급 이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2013.10.28일자 기사, 건설경제신문)」

“가족이란
이름으로”

해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풍성합니다. 매주 수요일 퇴근 무렵에는 ‘가족사랑의 날’¹⁾이라며 귀여운 아이의 목소리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가족이라서 고마워요!’ 라고 노래²⁾가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부 역사 속에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해온 직원 가족들의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무릇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맡은 바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보니 공직자 가족 역시 국가현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의 모범을 보이며, 매사에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신문기사³⁾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지도층인사부터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하고 이는

1) 여성가족부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운영하던 캠페인을 2010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확대하여 확산해 나아가고 있음

2) 가족송 “고마워요” (방시혁 작곡, 방시혁·서윤미 작사)

3) 검소생활은 중요한 ‘공직내조’(1983.2.28, 경향신문)

아내의 지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근검절약과 국산품애용 등을 통한 '공직내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부인들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직장에 불러와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당청 직원 가족 교육 (80.10.2)



직원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청 강당에서 공직자 부인간담회를 개최하였다.(1986.4.18.)



공직자 부인간담회 개최(1986.4.30.)



조경식 환경처 초대장관이 공직자부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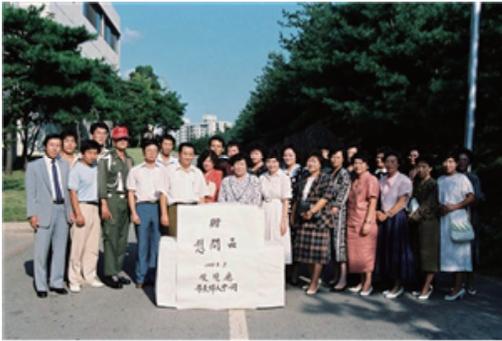


공직자 부인교육 실시(1991.2.27.)



공직자 부인교육 실시(1991.9.5.)

간부급 직원 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간부부인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기관을 위문 방문하고, 바자회에서 물건도 판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자회 행사 참여는 지금까지도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간부부인회 정당연수원 내 복무중인 경찰대원 위문 (1989.9.7)



간부부인회 정당연수원 내 복무중인 경찰대원 위문 (1991.12.11.)



간부부인회 송파경찰서 위문(1992)



간부부인회 정당연수원 내 복무중인 경찰대원 위문(1992)



간부부인회 보훈병원 위문(1992)



간부부인회 보훈병원 위문(1993.2.6)



대한적십자 주최 중앙부처 간부부인회 자선바자회 (1990.10.8.)



대한적십자 주최 중앙부처 간부부인회 자선바자회 (1991.10.26.)



대한적십자 주최 중앙부처 간부부인회 자선바자회 (1992.11.4.)



대한적십자 주최 중앙부처 간부부인회 자선바자회 (연도미상) ※환경차:1990~1994



이재창 환경처 장관(4대)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부인회 회원이 '재생비누' 제작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2.9.16.)



대한적십자 주최 사랑의 바자회에서 친환경상품 판매에 앞서 국무위원 부인반 일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10.23.)

기관에서는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아픔을 당한 직원 가족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김명자 장관(7대)이 직원가족을 접견하며 위로하고 있다. (연도미상) ※김명자 장관 : 1999.6~2003.2.



이만의 장관(13대)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성금을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2009.11.4.)



환경장학회 창립식에 이재용 장관(10대)이 축사를 하고 있다.(2006.2.27.)



이규용 장관(12대) 환경가족에게 환경장학금 전달 (2008.2.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직원 자녀에게 합격기원 떡과 사과 전달(2010.11.)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장관 축하카드와 함께 축하선물(기저귀, 목욕용품 등) 전달(2012)

직원 자녀들이 포스터 사진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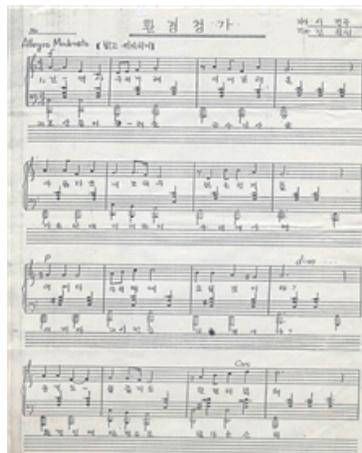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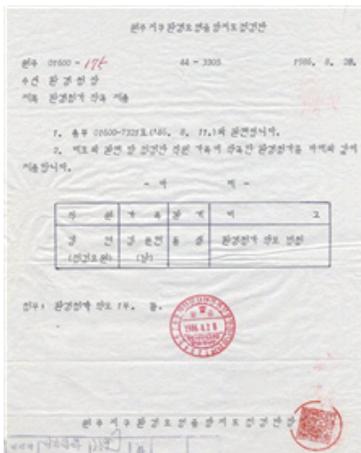


- 자연보호 포스터(2005) -
※모델은 신영옥 주무관의 아들 김민재 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2011) -
※모델은 김광덕 사무관의 딸 김수현 양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환경청가(環境廳歌)
공모에 직원 가족
(동생)이 직접 만든
곡으로 공모에 참여
(1986.8.28.)

※ 최종 환경청가는
서정주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확정
되었다.



공직자 부인간담회 연회에 참석한 직원가족 모습 (1986.4.18.)



조직을 크게 확장한 후 피로가 쌓인 직원과 가족을 위해 위로파티 개최(1986.12.17.)



환경부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개최한 '2010 환경부가족 한마음 체육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직원 자녀들이 환경골든벨 OX퀴즈를 풀고 있다.(2010.11.13.)



'2010 환경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시합중인 직원 자녀들(2010.11.13.)



초등학교 이하 직원자녀를 초청하여 '환경가족 엄마·아빠 직장체험' 실시(2012.5.17.)



엄마·아빠와 함께 환경시설 탐방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직원 자녀들(2012.5.17.)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운동장에서
'2013환경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2013.5.25.)



'2013환경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직원 가족들이
열심히 게임에 임하고 있다.(2013.5.25.)



'2013환경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응원을 펼치고 있는 직원 자녀들(2013.5.25.)



윤중수 차관(13대)이 신혼직원(부부)과 함께 대학로에서
연극관람을 하기 전 만찬자리에서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고 있다.(2012.8.23.)



한강유역환경청 이기태 경인환경출장소장이
명예퇴임식에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5.6.15.)



홍준석 기획조정실장이 명예퇴임식에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1.8.10.)

몇 해 전 명예퇴임하신 모 국장님께서 퇴임식 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평생 공직자의 아내로 살아오신 사모님께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거야?” 물었더니, “차라리 다시 안 태어날래요!” 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의 안위, 가정의 행복 보다는 나라의 일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직자들. 가족의 이해와 희생이 있었기에 원만한 공직생활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이란 이름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가족들에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사랑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가족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기록〉

- 청훈청가관계철(1986)
- 「검소생활은 중요한 공직내조(1983.2.28일자 기사, 경향신문)」
- 「청가제정...노래소리 드높은 환경청(1986.12.18일자 기사, 경향신문)」
- 「환경청장, 직원가족 위로파티 열고 공해교육 (1986.12.20일자 기사, 동아일보)」

8화

기록소개
No.8(2014.6.10.)

“환경부 역사 속 대통령”

대통령(大統領)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 전반에 걸친 행정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모든 국정을 두루 살피고, 당연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환경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공해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공해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환경청’ 발족을 지시하였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5~9대, 1963~1979)



「자연보호」박정희 대통령 친필(1976)
※출처:「환경30년사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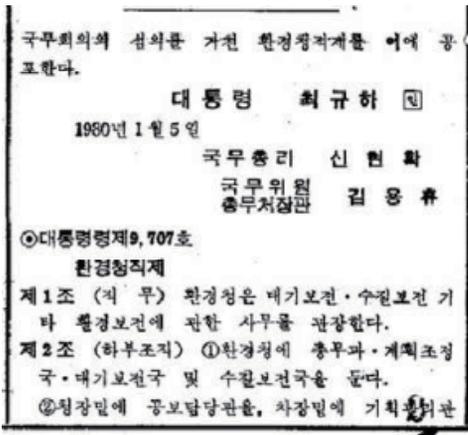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 환경청 발족 지시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
(1979.5.18. 경향신문(좌), 매일경제(우))



1980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9707호로 「환경청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환경청(1980.1.5.~1990.1.2)이 개청되었습니다. 「환경청 직제」는 최규하 대통령이 공포하였고, 개청 원년인 1980년 7월까지의 사진자료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규하 대통령(10대, 1979~1980)



「환경청 직제」(출처: 관보 제8436호, 1980.1.5.)



필리핀, 싱가포르 및 일본 등의 방문 소감을 말씀하시는 박승규 청장. (5.9)

※ 단상 중앙에 태극기와 최규하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있다.



각 시도 환경감시공무원 특별교육 (7.10)



공해공정법 심의를 위한 관계관회의 (80.7.24)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 대통령은 헌법개정작업을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였습니다.(제8차 개헌, 1980.10.27) 우리 환경청은 국가적 대사인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을 쾌적한 환경에서 치르기 위한 당면과제를 잘 수행하였고, 이러한 명분아래 1986년 10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 등 6개 지역에 환경지청을 설치¹⁾하면서 조직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 전두환 대통령(11~12대, 1980~1988)



대한민국헌법(1980.10.27, 제8차 개헌)

제33조(현재 제35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청와대에서 보사부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배석한 박준익 환경청장 (80.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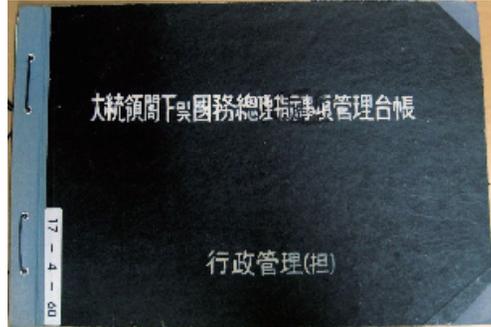
1981년도 당청 시무식 광경 (81.1.5)

※ 단상 중앙에 태극기와 전두환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있다.

- 1) 1986년 10월 29일 「지방환경관서직제」를 제정(대통령령 제11995호)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 등 6개지역에 환경지청을 설치하였다.
- 2) 최재욱 장관(5대)은 1983년 10월 9일 북한의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현장에 있었고, 구사일생으로 생존하였다.



환경청 산악회 창립총회 (81. 7. 1)



「대통령 각하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대장」 (1980-1982) ※ 2009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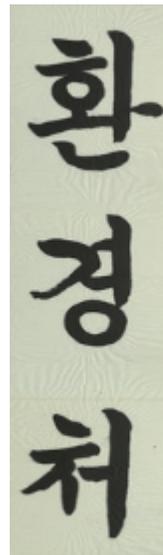
최재욱 장관(5대)의 아웅산 사건 생환 15주년²⁾ 기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1998)



최재욱 장관(5대)의 아웅산 사건 생환 15주년을 기념 하는 행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참석(1998)

한편 환경문제가 국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환경청은 노태우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990년 1월 3일 환경처(1990.1.3.~1994. 12.22.)로 승격됩니다. 이는 보건사회부 외청의 차관급 기관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국정을 논하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한 것입니다.

※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1990.1.3.)하게 되자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환경처' 친필 휘호를 받아 현판을 제작하였다.(1989.12)▶



■ 노태우 대통령(13대, 1988~1993)



연두순시에서 조경식 초대 환경처 장관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1990.2.20)



대통령 연두순시 환경처 업무보고(1990.2.20.)



제20주년 세계환경의 날 기념 국가 환경선언 선포식³⁾ (1992.6.5.)



제20주년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 축사를 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1992.6.5.)



제20주년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1992.6.5.)



제20주년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여직원이 꽃장식을 달아주고 있다. (1992.6.5.)

3) 노태우 대통령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선포함으로써 국가의 강력한 환경보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환경30년사' 75쪽, 2010, 환경부)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조직은 1991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로 말미암아 1994년 5월 당시 건설부 소관이었던 상하수관리 기능과 보건사회부 소관이었던 음용수관리 기능이 환경처로 일원화되었고, 1994년 12월 23일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격상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1996년 2월 환경업무 강화를 위해 청와대에 환경비서관을 신설⁴⁾하였으며,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주장하며 환경대통령을 자칭(1996)하였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14대, 1993~1998)



도봉산 자연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1990.8.25.)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가 도봉산 자연보호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1990.8.25.)



환경관리공단법 개정법을 국회제출⁵⁾(1993.7.1.)



호소수질연구소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팔당호 수질설명(1995.6.5.)

4) '청와대는 1일 사회복지수석실에 환경비서관을 신설, 조병환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내정했다. 보건환경비서관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1996.22일자, 경향신문)

5) 「환경관리공단법개정절(1993)」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 내외(1995.6.5)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후 김영삼 대통령 내외 전시장 관람(1995.6.5)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환경대통령 선언문 및 환경대통령 선언 기념 접시(1996)



제1회 환경의 날(제24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중인 김영삼 대통령(1996.06.05)



제1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김영삼 대통령 유공자 포상 수상자 격려(1996.06.05)



서울에서 개최한 '97 세계 환경의 날(제2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김영삼 대통령 치사(1997.06.05)



'97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 UNEP사무총장 등 귀빈과 함께 입장하는 김영삼 대통령(1997.06.05)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5일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며 환경보전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고, 환경의 날, 물의 날, 환경인 모임 등 각종 환경 행사에 직접 참석하며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우리 부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당시 내무부로부터 자연공원 업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이관 받았고, 이듬해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국가의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15대, 1998~2003)



호수수질연구소를 방문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1991.04.16.)



최재욱 장관(5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1999.2.10.)



새천년 새희망, 환경인 모임 행사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2000.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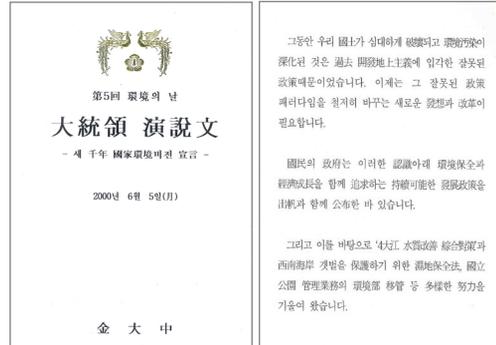


연두업무보고에서 김명자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0년도 맑은물 공급계획과 선진환경기술 개발 환경정책 보고를 하고 있다.(2000.02.17.)

6)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1999년 2월에 제정·공포한데 이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3대강수계 특별법 제정 공포 서명식을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하였다.〔환경30년사, 89쪽, 2010, 환경부〕



제8회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00.03.22)



제5회 환경의 날 행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언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연설문(2000)



2001 새출발, 환경인 모임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 (2001.01.16.)



2001 새출발, 환경인 모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치사를 하고 있다.(2001.01.16.)



청와대에서 실시한 3대강수계특례법 제정·공포를 위한 서명식(2002.01.09.)



제9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행사에 김대중 대통령의 영상메세지 상영 모습(2002.03.22.)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2006년 6월 5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으로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 의지를 천명하였고, 2007년 10월 10일 ‘국가생물주권 비전’을 선포하며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립하여 생물자원 강국으로 도약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조직은 참여정부 시기에 ‘수도권대기환경청(2004.12.)’과 ‘국립생물자원관(2007.10.)’을 신설하였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독립하여 개원(2006.2.22.)하였습니다. 또한 산하공공기관으로 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5.7.)과 친환경상품진흥원(2005.9.)이 차례로 개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에는 대한민국의 환경을 책임지는 예산이 3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16대, 2003~2008)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연설중인 노무현 대통령(2005.3.24~29.)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2005.6.5.)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광경호 장관(9대)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2005.6.5.)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식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2005.6.5.)



이규용 장관(12대) 임명장 수여식(2007.9.21.)



이규용 장관(12대)과 김수현 차관(10대)이 노무현대통령과 환담을 하고 있다.(2007.9.21.)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국립생물자원관의 개관을 축하해주고 있다.(2007.10.10.)



국가생물주권 비전선포식 및 국립생물자원관 개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07.10.10.)



'2008 창원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발대식에서 말씀중인 노무현 대통령(2007.10.27.)



'2008 창원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발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흑두루미의 눈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07.10.27.)



창원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발대식에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이규용 장관,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2007.10.27)



이규용 장관(12대)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연도미상)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녹색성장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하였고,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20)에 참석하는 등 대외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조직은 이명박정부 시기에 기상청이 환경부의 외청으로 이관(2008.2)되어 오고, ‘환경보건정책관’이 설치(2009.2)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설치(2010.6.)되었습니다.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주지방환경청이 ‘새만금지방환경청(2012.7.)’으로 새롭게 탄생하였고, 산하공공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09.4.)’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한국환경공단(2010.1.)’으로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17대, 2008~2013)



200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김명자 장관 좌측 첫번째)



GREEN KOREA 환경영웅상 시상식(2008.2.1)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GREEN KOREA 환경영웅상 시상식 후 국립생물자원관 방문(2008.2.1.)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GREEN KOREA 환경영웅상 시상식 후 국립생물자원관 방문(2008.2.1.)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회식에 연설중인 이명박 대통령(2008.10.28.)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회식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탄소상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2008.10.28.)



저탄소녹색생활 문화실천 확산을 위한 '여성부-환경부 협력협약체결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09.0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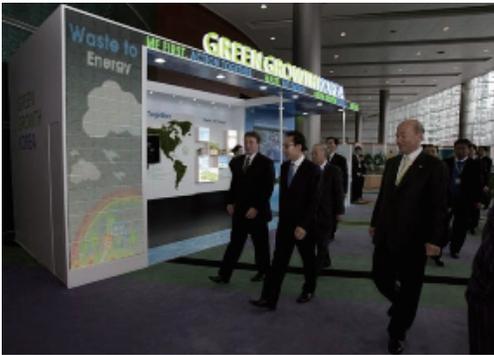
저탄소녹색생활 문화실천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식 후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전시관을 시찰하고 있다. (2009.04.30.)



이명박대통령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기조연설
(2009.12.17.)



2010년 청와대 업무보고(2009.12.30.)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4E) 개막식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2010.04.22.)



2012 신년 업무보고에 환경부 직원들이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2011.12.27.)



리우+20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유영숙 장관(14대)
기념촬영(2012.6.22.)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2012.9.6~7) 개막식에서
연설중인 이명박 대통령(2012.9.6.)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과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강조하며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화학물질 사고·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을 설립(2014.1.)하였고, 우리나라의 생태환경을 연구·관리하는 ‘국립생태원’이 산하공공기관으로 발족(2013.12.)하였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18대, 2013~현재)



이재용 장관(10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접견 (연도미상)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 치사 (2013.6.5.)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보전 유공자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다.(2013.6.5.)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인사와 환담중인 박근혜 대통령(2013.6.5.)

우리 환경부는 1980년 환경청에서 1990년 환경처로, 다시 1994년 환경부로 이어지는 35년의 역사 속에 역대 대통령과 함께 많은 발전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들이 많은 환경정책을 펼치고, 왕성한 활동으로 그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서명

The Signatures of the Former Presidents

이승만(李承晩)
Ehseung-man
第1~5代(1948~1960)

윤보선(尹潽善)
Yun Po-sun
第4代(1960~1963)

박정희(朴正熙)
Park Chung-hee
第5~9代(1963~1979)

최규하(崔圭夏)
Choi Kyu-hab
第10代(1979~1980)

전두환(全斗煥)
Chun Doo-hwan
第11~12代(1980~1988)

노태우(盧泰愚)
Roh Tae-woo
第13代(1988~1993)

김영삼(金泳三)
Kim Young-sam
第14代(1995~1998)

김대중(金大中)
Kim Dae-jung
第15代(1998~2003)

노무현(盧武鉉)
Roh Moo-hyun
第16代(2003~2008)

국가기록원

※ 역대 대통령의 서명(출처: 국가기록원, 2011)



〈참고기록〉

- 관보 제8436호(1980.1.5.)
- 처승격기념행사철(1990)
- 환경관리공단개정철(1993)
- 「환경 30년사(2010, 환경부)」
- 「환경대통령(2007, 신현국, 다문출판사)」
- 「대통령기록관 소장 역대대통령 주요 기록물(2008,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환경청 빨리 발족시키라(1979.5.18일자 기사, 경향신문)」
- 「환경청 조속히 발족시키라(1979.5.18일자 기사, 매일경제)」
- 「청와대 환경비서관 조병환氏(1996.2.2일자 기사, 경향신문)」

9화

기록소개
No.9(2014.10.1.)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 환경보호 활동 —

우리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목표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1980년 설립 이래 많은 곳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종 운동(캠페인 Campaign¹⁾)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 역사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펼쳤던 각종 활동 모습을 소개 해드립니다.



세검정에서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청 직원들 (80.3.8)



환경청 개청 첫째 박승규 청장(1대) 및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홍제천 일대에서 하천정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80.3.8)

우리 환경부의 사명이 ‘자연보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쓰레기와 오염원으로부터 더러워진 우리의 산하(山河), 우리의 자연을 깨끗이 하기위해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구슬땀을 흘리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아갔습니다.

1) 어떤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대중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Daum국어사전 참고)

■ 국토 정화활동



관악산 자연보호 캠페인(1990.4.27)



탄천 자연보호 캠페인(1990.5.21)



맑은 물 보전 하천정화실천대회_한강 고수부지 정화 캠페인(1990.6.16)



북한산 자연보호 캠페인(1990.8.3)



관악산 자연보호 캠페인_쓰레기 수거봉투 배포(1990.8.12)



도봉산 자연보호 캠페인(1990.8.25)



국립환경연구원 봄맞이 북한산 자연보호 캠페인
(1991.3.24)



국립환경연구원 도봉산 환경정화 실천대회(1991.3.30)



하천정화 캠페인(1991.4.14)



관악산 자연보호 캠페인(1991.6.1)



관악산 자연보호 캠페인(1991.6.1)



양수리 자연보호 캠페인(1991.6.7)



성내천 자연정화 캠페인(1991.8.31)



관악산 자연보호 캠페인(1991.10.26)



우이동 북한산 자연보호 캠페인(1992.8.22)



푸른 한강 가꾸기 캠페인(1993.5.30)



피서지 환경정화 실천대회(1994.8.13)



더맑게 더푸르게 캠페인(1995)



팔당댐하류 오염행위 근절 캠페인(1999.9.18)



휴가철 쓰레기줄이기 캠페인(2001.8.3)



휴가철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용문산국민관광단지, 2001.8.3)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_하천변 쓰레기 및 영농폐비닐 수거작업(2006.4.14)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금강수변, 2007.4.20)



한강상수원 수중정화활동(2007.6.19)



장마철수해쓰레기 국토대청소의 날_수중쓰레기 수거작업(2009.9.10)



클린코리아 한강 발대식_수변정화활동(2011)

산과 들, 하천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그리고 명절을 맞아 귀향 차량이 드나드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 거리에서, 고속도로에서



도심 환경정화 캠페인(1990.8.1)



제19회 세계환경의날 기념 거리캠페인_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 배포(1991.6.5)



「쓰레기를 줄입시다」스티커 붙이기 캠페인 (1992.8.20)



포장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1992.9.4)



세계환경의날 기념 거리질서 캠페인(1993.6.5)



세계환경의날 기념 거리질서 캠페인(1993.6.5)



제21회 세계환경의날 기념 캠페인(1993.6.5)



더맑게더푸르게 가두 캠페인(연도미상, 환경처'90~'94)



제22회 세계환경의날 거리 캠페인(1994.6.5)



깨끗한 고속도로 가꾸기 캠페인(안성, 1995.5.6)



주유소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캠페인 전개(1996.9.2)



제3회 환경의날 가두 캠페인(1998.6.5)



1회용품 사용자제 캠페인(수원 00백화점 앞, 1999.3.16)



장바구니 나눠주며 1회용품 사용자제 당부(1999.3.16)



과대포장줄이기 거리 캠페인(1999.12.21)



고속도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2000.7.29)



추석명절 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 전개(2003)



제18회 세계물の日 한강물길 체험 및 수변정화활동 가두 캠페인(한강유역환경청, 2010.3.22)

한편 수마가 활궤고 지나간 우리 이웃의 보금자리와 자연을 치유하고, 기름유출로 망가진 망망대해 앞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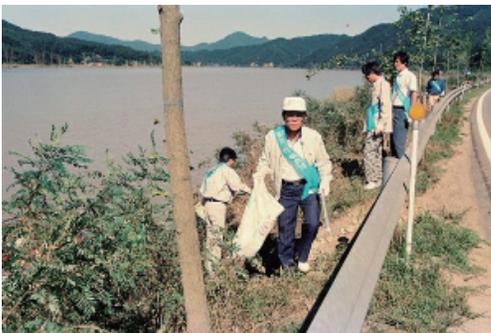
■ 수해 현장에서, 기름오염 현장에서



풍납동 수해지역 대청결운동(1990.9.15)



풍납동 수해지역 대청결운동(1990.9.15)



양수리 수해지역 정화활동(1990.9.19)



양수리 수해지역 정화활동(1990.9.19)



독섬 수해지역 대청결활동(1990.9.19)



파주 문산 수해지역 복구활동(1999.8.6)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태안해변 기름오염 방제작업(2007.12.12)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태안해변 기름오염 방제작업(2007.12.12)

쓰레기를 줍고, 1회용품 사용자제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수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환경을 지키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



한강 자연보호운동_환경보전노래부르기 캠페인(1990.5.13)



환경보호 캠페인 및 환경보호 제전(1994.6.26)



자전거타기 캠페인 전개(과천시, 1996.4.21)



제1회 환경의날 기념 자전거타기 캠페인(1996.6.5)



음식물 남기지않기(빈그릇운동) 캠페인(2004.11.10)



제1회 푸른하늘의날 공기가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2006.9.22)



폐건전지 100만개 수거 캠페인(2009.7.14)



2010 쿨맵시 패션 캠페인(2010.4.21)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2011.7.7)



황사피해줄이기 캠페인_황사마스크 배포 행사(21012.3.19)



2012 안전산행 캠페인(설악산국립공원, 2012.3.21)



2012 친환경운전왕 선발전대회(2012.6.10)



“올여름휴가 생태관광지에서 보내세요”(2013.7.19)



저탄소명절보내기 캠페인(2014.1.27)

이 땅에 환경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국토를 깨끗이 하고, 국민의 행복을 이어가기 위한 환경부 직원들의 환경사랑 활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10화

기록소개

No.10(2014.12.23.)

“응답하라 1994”

— 환경부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

청마(靑馬)와 같이 희망찬 포부를 품고 시작한 201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은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4년은 우리 환경부 역사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응답하라1994’라는 제목으로 199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 과천청사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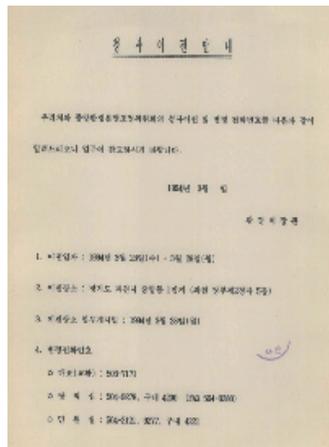
1994년 3월, 환경처는 정부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9년 동안의 잠실시대를 마감하고 정부제2종합청사(과천청사)로 이전(1994.3.23.~3.28)하였습니다. 환경처의 종합청사 입성은 정부부처 내에서 환경처의 강화된 위상을 대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5동 지하에는 문서고와 자료실, 비상상황실이 위치하였고, 1층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5,6,7층에는 각 실·국별 사무실이 위치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된 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현판으로 인하여 교통부가 3월22일 먼저 현판의 반만 열고 현판식을 하고, 나머지 반은 3월31일 환경처가 현판식을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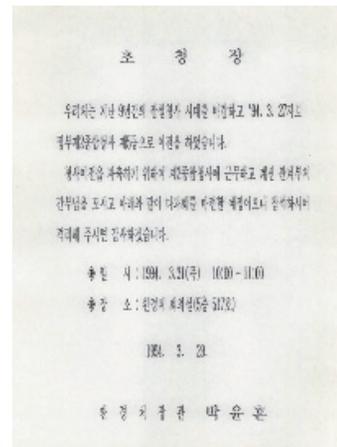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환경처를 떠나게 된 방호원, 청원경찰, 청소원, 이용원 및 교환원 등의 직원들에 대한 위로행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처 잠실청사 매각 비용은 정부대전청사 건축비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¹⁾



청사이전관계철(1994)



청사이전 안내문 및 청사이전 축하행사 초청장(1994.3)



1) 「동아일보 1994.3.11.일자 기사 참고



환경처 청사이전을 알리는 당시 언론본도(’94.3.30,한겨레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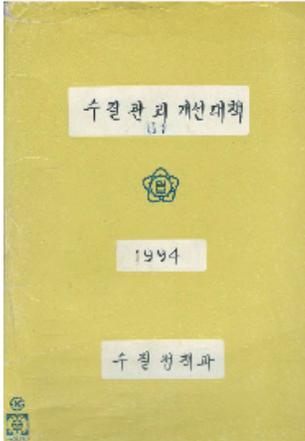
과천시청사 5동 현관 앞에서 현판식 거행(1994.3.31)
(왼쪽부터 김인환 기획관리실장, 박윤흔 장관, 김형철 차관, 조병환 조정평가실장, 전영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94년 당시 직원 표기

■ 환경처로 물관리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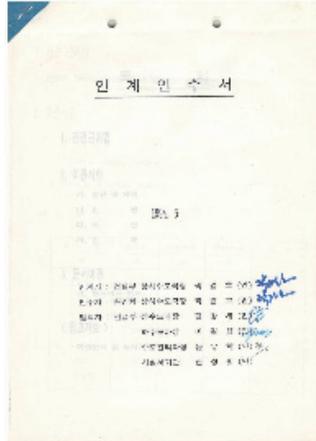
1991년 3월, 구미시 소재 00전자공장에서 유출된 폐놀로 인하여 ‘낙동강 폐놀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수질문제와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3년, 환경처와 건설부 등 8개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범정부적 수질개선대책인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놀오염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94년 1월,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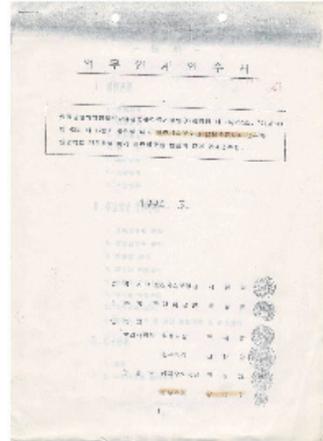
낙동강오염 문제 진화에 나선 정부는 국무총리명의로 ‘4대강 수질관리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물관리 기능강화 및 일원화를 위해 1994년 5월, 당시 건설부가 담당했던 상하수도업무와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던 음용수관리업무를 환경처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처 내에 상하수도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질관리개선대책(1994)



건설부 인계인수서(1994.5)



보사부 인계인수서(19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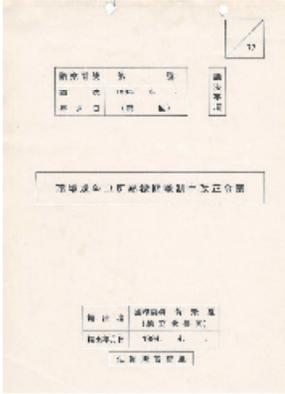
낙동강오염사고관련 당시 언론보도 (1994.11.14, 한겨레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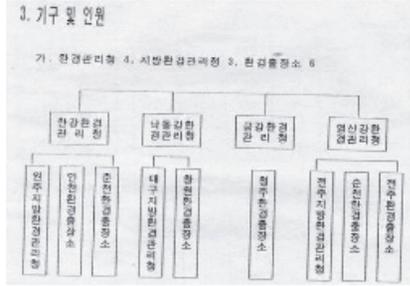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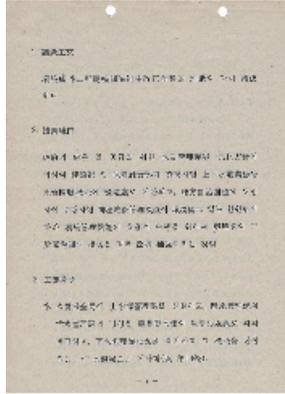
상하수관리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면서 28명의 건설부 직원들이 환경처로 전입되었다.(1994.5)

■ 소속기관을 '환경관리청'으로 개편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소속기관도 4대강 수계 중심으로 개편되어 서울·부산·대구 등 지역단위의 6개 지방환경청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개편되고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이 4대강 환경관리청 소속의 2차 기관으로 편제되었습니다(1994.5). 소속기관이 일시에 개편을 단행하게 되어 환경처 본부에서는 현판 및 관인을 일괄 제작·배포하는 등 분주히 소속기관 개청을 준비하였습니다.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안(1994.4)



4대강 환경관리청 아래 3개 지방환경관리청과 6개의 환경출장소로 개편

4대강 환경관리청 출범 한강·낙동강 어제 개청

한강환경관리청(청장 황홍석)이 10일 경기도 안산시 옛 서울지방환경청 청사에서 박윤춘 환경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하고 개청했다.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민경현)도 이날 옛 부산지방환경청 청사에서 김형청 환경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 이밖에 영산강환경관리청(청장 주수영)이 11일 오전 광주에서, 금강환경관리청(청장 김시현)은 12일 대전에서 개청식을 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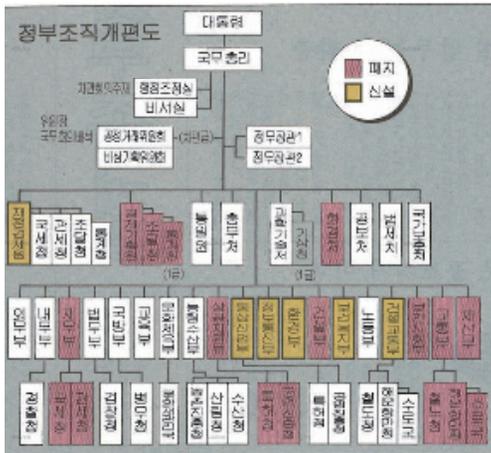
한강환경관리청 현판식(1994.5.10.)

4대강 환경관리청 출범을 알리는 언론기사('94.5.11, 한겨레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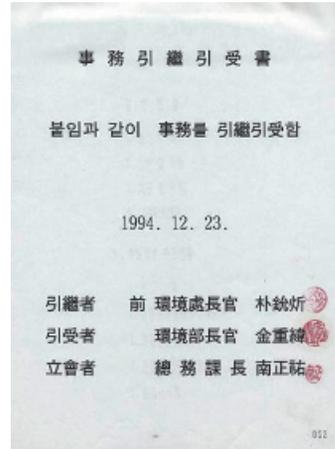
■ 환경부 승격(1994.12.23.)

환경처가 과천청사로 이전하고, 물관리 일원화로 상하수도 및 음용수관리 업무를 이관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2월23일 환경처는 환경부로 승격됩니다. 환경부로의 승격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출이며, 국민적 관심에 대한 서비스행정의 일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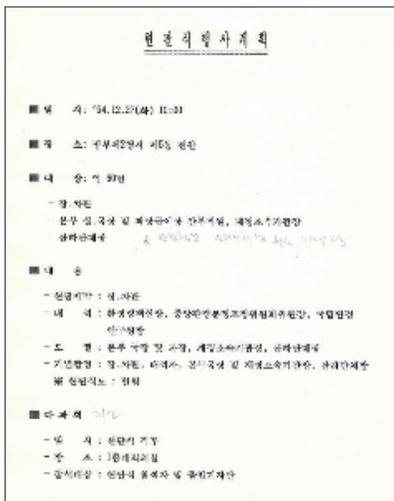
1994년 3월 과천청사로 이전하여 환경처 현판식을 거행한지 9개월 만에 다시 환경부 현판을 걸고 12월27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정부조직개편관련 언론기사(1994.12.4, 동아일보)



환경처-환경부장관 사무인계인수서(1994.12.23.)



환경부 현판식행사계획(199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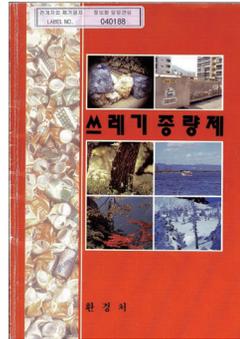


김중위 초대 환경부 장관, 김인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거행(1994.12.27)

환경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환경부 승격 이래 20년을 쉽 없이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
 기를 기원합니다.

〈 1994년도 주요내용 〉

- (1월) 낙동강 식수오염사고발생
- (1월) 4대강 수질관리개선대책 수립
- (1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 (2월) 바젤협약 가입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5월)
- (2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확정
- (3월) 정부과천청사로 이전
- (4월)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95.1.1. 전국시행)



- (5월) 수질관리기능 이관으로 상하수도국 신설
- (5월) 수계중심으로 4개 환경관리청 개편
- (7월)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8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10월) 생물다양성협약 가입
- (12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2월) 환경부 승격



〈참고기록〉

- 청사이전관계철(1994)
- 개청준비관계철(1994)
- 수질관리개선대책철(1994)
- 인수인계서(1994)
- 「환경 30년사(2010, 환경부)」
- 「환경백서(1995, 환경부)」
- 「오염의 풍랑을 헤쳐 간 환경호 사공들의 이야기(2004, 환경동우회)」

기록으로 만나는 환경부 이야기

발 행: 환경부

편 집: 운영지원과장 김동진

행 정 팀 장 김기덕

기록 연구사 이경훈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처: 환경부 운영지원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연락처: Tel. 044-201-6290 Fax. 044-201-6231

arabee@korea.kr

인쇄처: (주)에스엠이엔피 Tel. 044-864-9818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친환경 종이로 인쇄하였습니다.

〈비매품〉

